



박소현의 섹.시.토크

친구 K 부부가 얼마나 열렬하게 연애를 했는지는 친구들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난 첫 해에는 일 년 365일 중 두 번의 명절 당일과 예비군 훈련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났고, 일 년이 지난 뒤에다 이를 이상 못 보면 애가 닳아 어쩔 줄 몰라했다.

연애를 워낙 불같이 했던 까닭에 우리는 그들이 결혼을 하면 좀 잠잠하고 무던한 부부가 될 줄 알았다. 삼년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호르몬도 바닥이 나는 시기고 하니 말이다.

그래서일까? 오랜만에 만난 K가 잔뜩 부은 얼굴로 남편에게 화가 났다며 운을 떼자 우리는 약간의 설렘마저 느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너희들은 그게 용납이 돼?"



"가끔은 혼자 하고 싶고 그러겠지 뭐." "왜 그래? 남편이 마스태이션하는 장면이라도 본 거야?"

받을 수 있겠어?" K를 제외하고 다들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부부관계 좋은 거랑 그건 상관없대. 말 그대로 그냥 본능인거야."

다른 여자 생각하며 흥분하는 남편의 자위 생각하기도 싫어 그건 정신적 외도야!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때 날 생각했어? 다른 여자를 생각할 거 아니냐. 난 그게 싫어." "날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진짜 변태 아니야?"

네 안에 나 없니?

신적 외도야." 사실 K는 확장시절부터 소유욕이 강했고 결벽증과 완벽주의도 있는 편이었다.

"그럼 남편의 상상력까지 독점하겠다는 거야?" "그저 내가 다른 남자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도 다른 여자 상상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다만 친구의 고백에 다들 놀리는 듯한 표정이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다른 남자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검색절정 키워드

연예인 잇단 자살... '베르테르 효과' 충격

이번 주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이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2일 배우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한데 이어 3일에는 트랜스젠더 배우 장채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6일에는 모델 김지후도 자살을 선택했다. 장채원과 김지후는 성전환 수술과 커밍아웃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도 검색어로 순위에 등장했다. 동조자살 또는 모방자살이라고도 하는 '베르테르 효과'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 된 용어로 연예인들의 잇달은 자살과 함께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젊음의 축제 대학가요제도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지난 4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대학가요제에서 16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 파티켓츠가 그루브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대상을 수상하며 인기를 끌었다. 금상을 수상한 의화도 최원우도 환절한 외모로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8일 사직구장에서 막이 오른 2008프로야구 포스트 시즌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 시즌 구름관중을 몰고 다녔던 롯데 자이

언츠와 신홍 강팀 삼삼 라이온즈가 준플레이오프에서 맞붙으면서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진 사직구장에는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날을 새는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등 부산의 뜨거운 야구 열기도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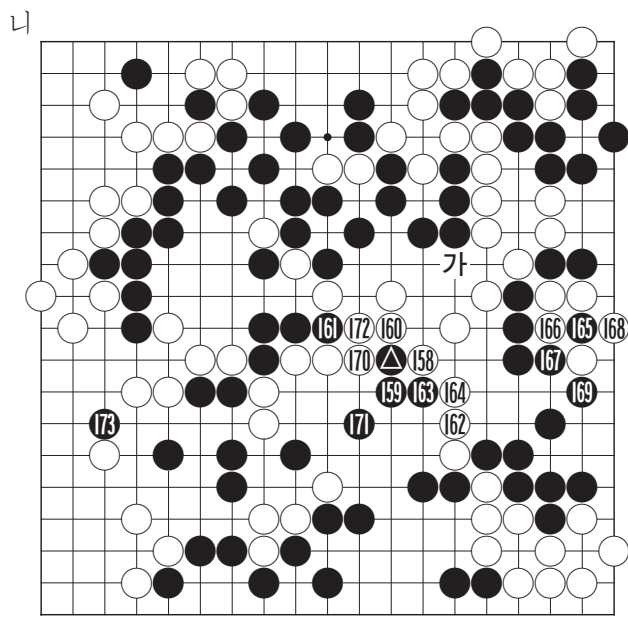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린 8일 부산 사직야구장은 입장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마최강부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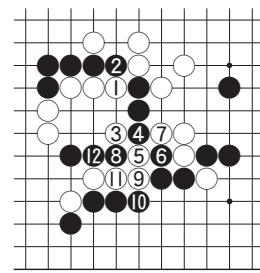
흑 ▲가 해머로 내려친 것같은 통렬한 급소였다. 이때 백이 160에 둔다든가 하는 것은 '가'가 선수여서 흑이 158에 늘면 대박이 없다.

위기 속에서 찾아낸 호수

개인전 준결승 10보(158-173)

白 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참고도



서 중앙 흑 집이 불뚱없게 되고 있다. 결정타라고 믿은 흑 ▲가 목표를 잃자 심 6단은 불속 163을 선수했는데 이 수가 대박수가 되었다.

대한주박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음 9월 12일 己卯)

36년생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니 옛일을 살펴보고, 48년생 결실은 잊으라. 60년생 자녀는 자신의 품이니 품과 같이 키우라.

37년생 양보하면 송사도 피해간다. 49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러움은 내 차지다. 61년생 차분하게 기다려라 재복이 찾아온다.

38년생 할 일이 많으니 바쁘게 움직여라. 50년생 가벼운 극적이었으니 큰 일은 아니다. 62년생 옛 일이 괴롭혔으니 회개하며 지내라.

39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있으니 조용하게 관망하라. 51년생 협조하면 시비는 사라진다. 63년생 꾸준한 전진하라 그러면 상재 하리다.

40년생 소망은 꿈꾸는 자만이 갖는다. 52년생 협상이 難題로다. 양보하며 진행하라. 64년생 계획한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라.

41년생 눈과 귀가 부드러운 하루로다. 53년생 옛 친구가 찾아오니 마음은 무겁다. 65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한 발짝 다가선다.

42년생 발전이 있으니 하던 일에 매진하라. 54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즐겁게 보내라. 66년생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살펴보고.

43년생 교통사고 조심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물이다. 55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67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니 마음 또한 즐겁다.

44년생 화제가 보이니 꺼진 불도 다시보라. 56년생 달라는 상대가 나타나니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68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온다.

45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 시비는 본인의 부주의다. 57년생 바라던 일이 일사천리 추진된다. 69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으니 수양해야 하리다.

46년생 해질녘에 실물수니 마무리를 잘하라. 58년생 타인과 시비는 송사를 부른다. 70년생 시비는 필연으로 화해로 처리하라.

47년생 집안이 불안하니 중심을 잃지 마라. 59년생 속전속결전 관망서 급한 일이 속출한다. 71년생 외적인 화려보다 내적인 실속이 마음을 쉼야한다.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64>

Let's catch a movie tonight. 오늘 밤 영화나 보십시오.

A: Let's catch a movie tonight. B: I'll have to check to see if they have tickets. A: You think they might be sold out? B: Yeah, this is a popular flick.

A: 오늘 밤 영화나 보시죠 B: 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A: 표가 다 팔렸을 것 같네요? B: 예, 아주 인기가 많거든요.

\* flick: 영화 \* check: 확인하다 \* sold out: 매진된 \* catch a movie: 영화를 보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64>

授業(じゅぎょう)は何時(なんじ)からですか? 수업은 몇 시부터입니까?

A: 金さん, 授業(じゅぎょう)は何時(なんじ)からですか. B: 授業(じゅぎょう)は午前(ごぜん)九時(くじ)半(はん)からです. A: あ, まだ時間(じかん)がありますね, 今度(こんど)のテストはいつですか. B: 今度のテストは五月(ごがつ)十四日(じゅうよっか)です.

A: 김씨, 수업은 몇 시부터입니까? B: 수업은 오전 9시반부터입니다. A: 아, 아직 시간이 있군요. 이번 테스트는 언제입니까? B: 이번 테스트는 5월 14일입니다.

授業(じゅぎょう): 수업 講義(こうぎ): 강의 まだ: 아직, 아직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41>

去商场买什么? 상점에 가서 무엇을 삽니까?

A: 你去哪里? ni qu nali B: 我去商场。 wo qu shangchang A: 去商场买什么? qu shangchang mai shenme B: 买本子。 mai benzi

A: 어디 갔니? B: 상점에 갔습니다. A: 상점에 가서 무엇을 삽니까? B: 공책을 삽니다.

商场 [shangchang] 상점 本子 [benzi] 공책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81>

野書燕說 (영서연설) 땅이름 영, 글서, 나라이름 연, 말씀 설

영서연설(野書燕說)은 초(楚)나라 서유인 영(嬰)이 사는 사람이 쓴 편지를 연(燕)나라 사람이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정치에 적용하였다는 것으로,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교묘하게 이치에 맞는 일을 비유한다.

이 말은 '한비자(韓非子)'의 외제설편(外儲說左)에 나온다. 춘추전국시대에 남쪽의 초(楚)나라 도읍 영(嬰)에 사는 사람이 북쪽의 연(燕)나라의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다. 밤에 편지를 쓰는데 불이 밝지 않으므로 하인에게 '등축의 심지를 둔 우리'는 의미로 '거축(擧觸)'이라고 지시하고서는, 자신도 그만 실수로 '거축(擧觸)'이라고 쓰고 말았다. 등불을 들라는 말은 편지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나라 재상은 편지를 받고 그것을 설명하여 말했다. "등불을 들고 하는 것은 밝음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밝음을 존중한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여 임용한다는 것이다." 재상이 왕에게 아뢰자, 왕은 매우 기뻐하였으며, 현자(賢者)를 많이 등용하여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 나라는 잘 다스려졌지만, 편지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었다. 이 고사로부터 '거축(擧觸)'은 현인을 천거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여원(韓孝嫺)>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